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가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고창엘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지질공원네트워크 인증에 총력

엘파크시티 정기회의 개최 정보교류·운영 활성화 모색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제4회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정기회의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에 걸쳐 고창엘파크시티 홀론아트홀에서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사무국, 전문가, 국가지질공원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지질공원네트워크 정기회의'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지자체와 인증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함께 모여 지질공원 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교류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전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고창군에서 개최됐다.

1일차에는 국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8개(제주도, 울릉도·독도, 부산, 강원평화(DMZ), 청송,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강원고생대) 지자체의 운영 모범 사례 발표와 함께 현재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준비 중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제도 및 인증절차·방법 등 전문교육과 2017년 지질공원 주

요업무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2일차에는 고창군 지질명소인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 고창갯벌, 명사십리와 구시포 등 지질명소를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박우정 군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해 지질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지질자원을 활용한 교육·관광 등을 통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